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수 란[†]

이 동 귀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자존감의 수반성(contingencies of self-worth; Crocker & Wolfe, 2001) 영역을 밝히고, 수반성 영역에서의 자기 불일치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자존감의 수반성 척도(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 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를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타당화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27문항 5개 요인구조가 제안되었는데, 4개요인(신의 사랑, 도덕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은 미국에서의 요인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쟁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요인(우월성)이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자기 불일치 이론(Higgins, 1987)에 근거하여 수반성 영역에서의 불일치 점수(불일치 점수 = 표준화 한 영역별 수반성 점수 - 표준화 한 영역별 평가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군집 분석(Hair & Black, 2000)을 실시한 후, 집단별로 자존감 및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3개의 군집(높은 평가 집단, 적응적인 불일치 집단, 부적응적인 불일치 집단)이 제안되었으며, 부적응적인 불일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자존감의 수반성, 자존감의 수반성 척도, 문제해결 평가, 자기 불일치, 자존감, 정신건강, 한국 문화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수란의 석사논문(2008년 2월, 지도교수 이동귀)에 바탕을 둔 것임.

† 교신저자 : 이수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유역점 기념관 201호

Tel : 02-2123-4889, E-mail : suri@yonsei.ac.kr

심리학에서 자존감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삶의 질,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Brockner, 1984; Diener, 1984; Rosenberg, 1965).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과 낮은 사람들의 특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Pelham & Swann, 1989), 불안과 우울이 낮으며(Tennen & Herzberger, 1987), 삶의 만족도가 높은 특성(Diener, 1984)을 보이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낮은 학업 성취, 섭식 장애, 약물 중독, 청소년 임신 등의 사회 문제와 관련 있음이 밝혀져(Dawes, 1994; Scheff, Retzinger, & Ryan, 1989)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상담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낮은 자존감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상담의 중요한 목표로 다루고 있다(Rogers, 1959; Raskin & Rogers, 2000).

한편, 일군의 연구들은 단순히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개인의 적응과 사회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높더라도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eister, 1999). 또한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관점(Cooley, 1956; Mead, 1934)에서 보면,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찍힌 집단의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낙인 집단 내에서도 자존감의 높낮이의 측면에서 큰 개인차가 나타났 다(Crocker & Lawrence, 1999; Crocker & Major,

1989). 뿐만 아니라, 노화, 우울, 상실 등과 자존감 높낮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Brandstadter & Greve, 1994). 따라서 연구자들은 단지 높낮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존감의 다양한 측면(자존감의 안정성, 상태 및 특질자존감의 구별, 자존감이 높은 혹은 낮은 집단 내에서의 개인차 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실제로 자존감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Brown, 1994; Leary & Downs, 1995).

자존감과 관련된 많은 연구 주제 중에서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의 종류와 그 중요성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Crocker & Wolfe, 2001). 자존감을 유지하고, 고양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만(Leary, Tambor, Tedral, & Downs, 1995), 이를 위해 어떤 영역에서의 성공경험이 필요한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에게 민첩성, 지구력, 유연성 등이 운동선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지만, 음악가에게 이 영역들은 감수성, 예민성, 악기를 다루는 기술 보다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민첩성과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운동선수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음악가는 같은 평가를 받더라도 자신에 대한 평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존감과 특정 영역에 관한 이러한 관계는 일찍이 William James(1890)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그는 전반적인 자기 평가를 자신이 중시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평가의 결과라고 정의였고, 자기 평가에는 개인이 중시하는 영역의 속성이나 능력이 결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중요성 가설’을 제안하였다. 여러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였고(예, Coopersmith, 1967), 더 나아가 Crocker와 Wolfe (2001)는 James의 견해를 정교화 하여 ‘자기 가치감의 수반(隨伴)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¹⁾’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특정 영역에서 성공을 추구하거나 실패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 보호, 고양하고자 하는데, 개인마다 자존감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은 서로 다르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개인의 자존감이 특정 영역에서의 결과(성공, 실패)에 따라 달라질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은 그 영역에 수반(contingent)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가 클수록 수반성이 큰 것이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학업 성취에 수반된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자존감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자존감 높이에 많은 변동이 있었으나, 학업 성취에 대한 수반성이 낮은 학생들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안정된 자존감 높이를 유지했다(Crocker & Wolfe, 2001).

Crocker와 그의 동료들(2003)은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자존감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되는 변인들(예: 사랑, 승인, 권력에 대한 욕구)을 기초로 대학생의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타인의 승인, 외모, 경쟁, 학업적 자신감, 가족의 지지, 미덕, 신의 사랑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을 통해 중요성 가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Crocker et al., 2003; Park & Crocker, 2005).

흥미로운 것은 Crocker와 그의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 동양학생의 경우, 각 영역의 수반성과 자존감의 상관관계가 다른 인종(미국에 거주하는 흑인, 백인 집단)의 학생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인종 집단에서 타인의 승인이 자존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동양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 = .04$). 또한 다른 인종 집단에서는 가족의 지지, 미덕, 신의 사랑 등의 요인이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동양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의 지지: $r = .20$; 미덕: $r = .19$; 신의 사랑: $r = -.21, p < .05$).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자신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과 그 영역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자기(self)가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각 문화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 추구하고, 사회가 제공하는 틀에 근거하여 자신을 평가함을 밝혀왔다(예, Goffman, 1959; Mead, 1934).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서구 문화의 이상적인 개인은 상황이 변해도 유지되는 고유한 내적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서구 문화의 가치를 내면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에 대한 긍정적인

1) 자존감의 수반성 척도를 개발한 Crocker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의 가치감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self-worth’와 ‘self-esteem’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Crocker & Wolfe, 2001).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더욱 익숙한 용어인 자존감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인 평가가 개인의 가치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Hallowell, 1955). 반면, 한국, 일본 등의 동양에서는 자기반성, 다른 사람과의 조화, 가족, 공동체, 관계의 유지 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갈등의 해결, 이해와 조화에 중요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을 잘 준수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Ho, 1995; Tu, 1994).

한국문화에서도 강한 집단주의적, 상호의존적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 1999), 이러한 특성이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을 밝힌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2006)의 연구에서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부모에 의한 인정, 경제력, 자녀에 대한 만족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한국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을 밝힌 연구에서도 경제력 요인과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성취 및 자기수용 요인들이 삶의 만족, 행복 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문화에서 가족 및 타인의 인정을 받고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것이 개인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문화별로 중시하는 가치와 이상적 개인의 특성, 자기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존감의 수반성 영역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존감의 수반성을 이해하더라도, 개인의 실제 경험을 고

려하지 않는다면 자존감과 정신건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영역에 대한 자존감의 수반성이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얻고자 하거나 높은 기준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Crocker & Wolfe, 2001),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높은 기준에 근거한 이상적인 자기상(self-image)과 실제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상 사이의 불일치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Schafer, 1967; Piers & Singer, 1971; Rogers, 1961). 예를 들어, Hewitt과 Dyck(1986)은 높은 수행 기준이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고 무력감, 불만족을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urns(1980)는 비합리적으로 높은 기준이 좌절감, 우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Higgins(1987)는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 보완하여 자기 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실제적 자기와 자기-지시적 기준 혹은 자기 지침으로서의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 간의 괴리가 정서적 불편감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실제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정이 지지되어 왔다(정승아 & 오경자, 2005; 이영호 & 최정원, 1998). 즉, 단순히 높은 기준을 갖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높은 기준으로 인해 실제 자기와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부적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업에 대한 수반성이 동일하게 높더라도 실제로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보다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보다 많은 부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같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라도 학

업에 대한 수반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성적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즉, 개인의 실제 경험과 지각을 고려하지 않고 수반성만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존감의 수반성과 함께 실제 경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고려하여 수반 영역에 대한 불일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연구를 통해 한국 대학생의 자존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각 영역이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 척도(CSWS)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문화에서 어떠한 수반성 영역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CSW)과 관련 있는 변인들(자존감, 사회적 미화 경향성, 삶의 만족도, 자기 평가 소재)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CSWS의 타당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자기 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여 자기 가치감의 특정 영역에 대한 수반성 점수와 그 영역에서의 실제 경험 및 평가 사이의 불일치가 개인의 부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자존감이 수반되어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자존감이 수반된 영역에서 개인의 실제 경험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자기 가치감의 각 영역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후, 각 영역별 수반성 점수와 평가 점수의 차이

점수(불일치 점수)를 산출하여 영역별 불일치 점수에 따라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군집)이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 하위집단들이 자존감 및 심리적 적응지표 상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후 군집 별로 자존감 및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지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통해 조사한다.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 영역을 이해하고, 각 영역에서의 자기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CSWS의 타당화를 통해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1

방법

연구 대상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37명(남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9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1.7($SD = 2.67$)세였다. 참가자들의 학년 분포는 1학년 96명(40.5%), 2학년 57명(24.1%), 3학년 34명(14.3%), 4학년 50명(21.1%)이었으며, 종교는 개신교 58명(24.5%), 천주교 24명(10.1%), 불교 18명(7.6%), 무교 131명(55.3%), 기타 6명(2.5%)이었다.

측정 도구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

Crocker와 그의 동료들(2003)이 자존감의 수반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를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Korean -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K-CSWS)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타인의 승인, 외모, 경쟁, 학업적 자신감, 가족의 지지, 미덕, 신의 사랑 등 7개의 영역,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7점 리커트 형식 (1 =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 문항에 응답하게 되며, 각 영역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수반된 자기 가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4로 보고되었으며, 3개월 간격으로 실시된 CSW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 영역별로 $r = .51$ 에서 $r = .88$ 로 나타났다. 또한 CSWS의 각 영역들은 자존감, 신경증, 자기애적 성격 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Crocker et al., 2003). 본 연구에서 K-CSWS의 35문항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자기 평가 소재

Bucur와 Lee(2006)가 개인의 자기 평가의 소재(Locus of Evaluation: LOE)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he Locus of Evaluation Inventory(LEI)를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한 것(Korean-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K-LEI, Lee, Lee, & Park, 2008)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K-LEI 총점은 자존감, 발표 불안, 사회불안 등과 유의한 상관(자존감: $r = -.49$; 발표 불안: $r = .43$; 사회불안: $r = .44$ all $ps < .001$)을 나타냈다(Lee, Lee, Kim, & Choi, 2007). 18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형식(1 = 매우 동의하지 않음 6 = 매우 동의함)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를 자기 평가의 근거로 삼는 외적 LOE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한국문화를 고려할 때, LEI 총점을 사용하여 K-CSWS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K-LEI 18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어린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형식(1 = 매우 동의하지 않음 6 = 매우 동의함)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를 자기 평가의 근거로 삼는 외적 LOE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한국문화를 고려할 때, LEI 총점을 사용하여 K-CSWS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K-LEI 18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RS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 한다” 등의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리커트식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확실히 그렇다)상에 표시하게 된다. 이 척도는 긍정문항 5개와 부정문항 5개인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고양된 자존감 수준을 나타낸다.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로 보고되었으며(Fleming & Courtney, 198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로 보고되었다(Silber & Tippett, 1965).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4로 나타났으며, RSE는 K-CSWS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삶에 대한 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일치도 계수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안신능(2006)에 의해서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안신능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수반성이 낮을수록 안정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자존감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인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SWLS를 K-CSWS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미화 경향성

참가자들의 사회적 미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wne과 Marlowe(1960)의 사회적 승인 동기 척도(Marlow - 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들(예: 실수를 인정하기) 혹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편적인 행동들(예: 뒤에서 남의 이야기하기)에 대한 것이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된다. MCSD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종 도구의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Crowne & Marlowe, 1964). 본 연구에서는 이용승(2000)이 번안한 33문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K-CSWS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실시하였다. 사각회전의 일종인 프로맥스 회전(promax rotation)을 이용한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할 때,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요인 부하량 및 설명량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보완하고, 요인의 수를 엄격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함께 실시하였다(Zwick & Velicer, 1982). 평행분석은 연구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고유값과 무선적으로 생성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고유값을 선형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인데(O'Connor, 2000), 고유값이 1보다 큰 요인을 선택하거나(Kaiser, 1960) 스크리 도표로만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 요인의 수를 과대추정 하는 오류를 통제할 수 있어 요인의 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Zwick & Velicer, 1986; Velicer, Eaton, & Fava, 2000). 요인의 문항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Pett, Lackey와 Sullivan(2003)이 제안한 기준에 근거하여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s)이 .40 이하인 경우 문항을 삭제하였고, 교차 부하량(cross-loadings)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문항을 제외시켰다. 또한, K-CSWS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와 K-CSWS 하위요인들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구하고, 공존타당도와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CSWS와 K-LEI, RSE, SWLS 그리고 MCSD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SPSS 1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구조

K-CSWS 35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85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p < .001$ 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 도표와 평행분석 결과 및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의 7요인 구조와는 달리 5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 도표는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다가 다섯 번째 요인 이하로부터 평평한 기울기를 보였고, 평행분석 결과 역시 5개 요인을 기준으로 무선적 자료에서의 고유값이 커졌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5 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요인별 문항 및 요인의 특성

5 요인 모형을 확정하고 Pett 등(2003)이 제안한 기준을 참조하여 부하량(factor loadings)이 .40 이하인 문항을 삭제한 후, 추가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교차 부하량(cross-loadings)이 .30 이상인 문항도 제외시켜 기존의 35문항 중 8문항을 삭제했다. 그 결과, 전체 변량의 58.6%를 설명하는 5 요인, 27문항의 K-CSWS가 확정되었고, 27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나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미국에서의 7개 요인(타인의 승인, 외모, 경쟁, 학업적 자신감, 가족의 지지, 미덕, 신의 사랑) 중 신의 사랑(요인 2, 고유값 = 4.20, 설명 변량 = 15.54%), 미덕(도덕성; 요인 3, 고유값 = 2.34, 설명 변량 = 8.89%), 타인의 승인(요인 4, 고유값 = 1.74, 설명 변량 = 6.46%), 가족의 지지(요인 5, 고유값 = 1.0, 설명 변량 = 3.68%) 등 4개 요

인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들이 하나의 새로운 요인으로 묶여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 1에는 기존의 경쟁요인 5문항과 학업적 자신감 3문항, 외모 1문항(총 9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에 속한 문항들은 타인에 비해 능력, 성적, 외모 등을 좋게 평가하거나 우월성을 갖는 것이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으므로 요인 1을 '우월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값이 6.50으로 전체 변량의 24.1%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내적 합치도, 요인점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 간 상관

한편, 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때 수반성 영역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K-CSWS 하위 요인들의 상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우월성은 도덕성($r = .36, p < .01$), 타인의 승인($r = .24, p < .01$), 가족의 지지($r = .47, p < .01$)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가족의 지지는 우월성 및 도덕성과 비교적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신의 사랑은 다른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all $ps > .05$), 개신교와 천주교 집단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는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26, p < .01$).

타당도 분석

K-CSW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2). 이 때, 상관분석에서 1종 오류(영가설이 참인데 잘못 기각하는 오류) 증가 가능성을 통제하기

표 1. 자존감의 수반성 문항과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평균, 표준편차

27문항 ($\alpha = .87$) 문항	패턴 계수					b^2	M	SD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1 : 우월성 (9 문항; $\alpha = .89$)						5.56	.79	
어떤 과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자존감을 높인다.	.84	-.04	.01	.04	-.12	.64	5.85	1.03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은 나에게 자기 존중감을 가져다준다.	.81	-.02	.03	-.03	-.12	.69	5.84	1.05
나의 자기 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얼마나 잘 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81	.01	-.12	-.01	.05	.64	5.45	1.09
나의 자기 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과제에서 내가 얼마나 잘 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81	-.01	-.00	-.06	.06	.58	5.30	1.13
학교에서 잘 하는 것은 나에게 자기 존중감을 준다.	.62	.04	.23	-.05	.04	.56	5.46	1.06
나의 자존감은 내가 내 얼굴과 생김새가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느끼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56	.10	-.21	.16	-.01	.32	5.01	1.19
내가 학문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스스로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는다.	.56	.08	.25	.01	-.14	.48	5.83	.93
나의 자존감은 나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받는다.	.56	.01	-.07	.01	.24	.42	5.10	1.25
어떤 과제나 기술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	.52	-.10	-.07	.02	.12	.32	6.19	1.03
요인 2 : 신의 사랑 (5 문항; $\alpha = .96$)						2.87	1.82	
나의 자존감은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높아진다.	.03	.95	.00	-.02	.00	.91	2.86	1.96
나는 내가 신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낀다.	.05	.94	.02	-.01	-.07	.89	3.00	2.03
내가 신의 사랑을 받지 못 한다면 내 자존감은 상처받을 것이다.	-.02	.93	-.04	.04	.05	.86	2.80	1.90
나의 자기 가치감은 신의 사랑에 근거한다.	-.05	.89	-.02	-.03	.10	.79	2.97	1.99
내가 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나쁜 느낌을 갖는다.	-.02	.89	.05	.00	-.05	.80	2.71	1.88
요인 3 : 도덕성 (5 문항; $\alpha = .83$)						4.69	1.07	
내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없을 것이다.	-.15	.01	.89	-.00	-.01	.69	4.44	1.45
내가 비윤리적인 일을 한다면 나의 자존감은 상처받을 것이다.	.01	.06	.75	-.04	.07	.60	4.80	1.38
나의 자존감은 내가 도덕적/윤리적 규칙을 따르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03	-.11	.69	.08	.04	.52	4.17	1.34
내가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잃게 만든다.	-.02	.04	.60	.02	-.06	.35	5.00	1.42
내가 나의 도덕적 규칙을 따를 때마다 나의 자기 가치감이 상승된다.	.19	-.05	.52	-.01	.17	.49	5.02	1.24

표 1. 자존감의 수반성 문항과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평균, 표준편차 (계속)

27문항 ($\alpha = .87$) 문항	패턴 계수					b^2	M	SD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4 : 타인의 승인 (4 문항; $\alpha = .84$)							4.70	1.2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01	.01	-.10	.91	.07	.81	5.03	1.62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00	-.00	.00	.86	-.03	.73	4.82	1.63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3	-.02	.07	.77	.04	.63	4.93	1.43
나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갖고 있는 의견에 달려있다.	.14	-.01	.19	.43	-.16	.31	4.03	1.41
요인 5 : 가족의 지지 (4 문항; $\alpha = .72$)							5.62	.78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함을 아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만든다.	-.03	.03	-.04	-.07	.74	.51	6.07	.91
나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나의 자기 가치감에 중요하다.	-.06	.03	.15	.07	.70	.57	5.62	1.04
나의 가족들이 나를 자랑스러워 할 때, 나의 자기 가치감은 증가한다.	.26	-.06	-.07	-.07	.58	.52	5.84	.98
나의 가족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 나의 자존감은 내려간다.	.01	.05	.15	.11	.37	.24	4.95	1.29

주. $N = 237$. $b^2 =$ 공통성(communality)지수. 요인 부하량은 프로맥스 회전을 사용한 주축요인추출의 패턴행렬을 통해 산출되었다. 삭제된 8문항은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때,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다’ ‘나의 자존감은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데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없다’ ‘나의 자기 가치감은 우리 가족들과 나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의견은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나의 자기 가치감은 내가 잘 생기지(예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마다 상처 받는다’ ‘나의 자존감은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학업 성적이 부족할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 나쁜 느낌을 갖는다’이다.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p < .05$)보다 엄격한 기준($p < .01$)을 적용하여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먼저, 전반적으로 K-CSWS 하위요인들(우월성, 도덕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은 자기 평가 소재(K-LEI)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타인의 승인이 LEI 총점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64, p < .01$). K-LEI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평가할 때 타인의 의견 및 평가

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K-CSWS의 수렴타당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존감(RSE) 및 삶의 만족도(SWLS)와 상관을 살펴본 결과 타인의 승인은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r = -.21, p < .01$), 가족의 지지는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19, p <$

표 2. K-CSWS 요인과 척도들의 상관

	K-CSWS	우월성	신의 사랑	도덕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	K-LEI	RSE	SWLS	MCSD
K-CSWS	-									
우월성	.68**	-								
신의 사랑	.60**	.07	-							
도덕성	.65**	.36*	.13	-						
타인의 승인	.53**	.24*	.08	.30*	-					
가족의 지지	.55**	.47*	.07	.39*	.16	-				
K-LEI	.42**	.27*	.11	.16*	.64*	.18*	-			
RSE	.11	.11	.14	.09	-.21*	.19*	-.38*	-		
SWLS	.19**	.10	.19*	.14*	-.09	.24*	-.16	.56*	-	
MCSD	-.01	.07	-.03	-.17*	.12	-.05	.30*	-.31*	-.28*	-

주. * $p < .01$, ** $p < .001$, K-LEI = 자기 평가 소재 척도, RSE = 자존감 척도, SWLS = 삶의 만족도 척도, MCSD = 사회적 미화경향성 척도.

.01). 이는 타인의 승인이 자존감과 부적상관을 보이고($r = -.22, p < .01$), 가족의 지지가 자존감과 정적상관($r = .10, p < .01$)을 나타내었던 미국에서의 결과(Crocker et al., 2003)와 유사한 것으로 K-CSWS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지지($r = .24, p < .01$), 신의 사랑($r = .19, p < .01$) 및 도덕성($r = .14, p < .01$)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K-CSWS의 공준 타당도를 제공하였다. 또한 K-CSWS의 하위 요인들과 사회적 미화 경향성(MCSD)은 도덕성을 제외하고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지 않아($p > .05$) K-CSWS의 변별타당도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연구 2

방법

연구 대상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29명(남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18세에서 31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0.76($SD = 2.34$)세였다. 참가자들의 학년 분포는 1학년 118명(51.5%), 2학년 59명(25.8%), 3학년 28명(12.2%), 4학년 24명(10.5%)이었다.

측정 도구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 자존감

연구 1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함.

영역별 평가지

K-CSWS의 5개 하위영역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여 개인의 자존감이 수반된 정도와 실제 경험의 질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자기불일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역별 평가지를 제작하였다. 평가지 문항은 Vignoles, Regalia, Gollidge 및 Scabini(2007)의 연구와 안신호, 박미영(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 영역(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 영역(우월성)에 대해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등 자신감, 긍정적 감정 경험, 효능감, 만족도를 알아보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5개 영역 각각에 대해 간단히 기술된 문장을 읽은 후, 각 영역과 관련된 현재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게 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의 실제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의 문항들이 긍정적 경험이라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 대해 5개 문항이 1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1요인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평가하는 영역에 따라 61.88%(우월성 평가)에서 84.76%(신의 사랑 평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5개 문항의 총합을 평가 점수로 사용하였다.

정신 건강

간이증상검사(The Brief Symptom Inventory; BSI, Derogatis & Melisaratos, 1983)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간이정신진단검사지(Symptom Checklist 90 - Revised; SCL 90-R)의 단축형으로, SCL 90-R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정신증 $r = .92$, 적대감 $r = .99$; Derogatis, 1977). BSI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정도에 따라 리커트식 5점 척도(1 =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5 = 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응답하게 된다. 이 척도로 9개의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및 전반적인 심리문제의 심각도(Global Severity Index: GSI)를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마쳤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7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SPSS 12.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 및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반성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와 순위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고, 자존감의 수반성과 긍정적 경험 평가, 수반성과 긍정적 경험 평가의 불일치가 자존감 및 정신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수반성과 실제 자기 평가 사이의 불일치에 따라 몇 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 불일치 점수 5개를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군집변인으로 사용한 불일치 점수는 표준화 한 영역별 수반성 점수에서 표준화 한 영역별 평가 점수를 뺀 값으로(불일치 점수 = 표준화 한 영역별 수반성 점수 - 표준화 한 영역별 평가 점수), 수반성 척도와 평가 척도의 평정기준이 7점과 5점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점수를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불일치 점수가 클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평가가

낮은 것,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현실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적어 괴리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영역별 평가 점수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방법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방법인 K-means 방법을 차례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계적 군집방법만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자존감과 BSI의 하위요인(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 GSI)이었다.

결 과

상관분석

자존감의 수반성, 영역별 자기평가, 불일치 점수가 정신건강 지표들(BSI의 하위요인 및 자존감)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각 영역의 수반성 및 평가점수에서는 타인의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종속변인과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불일치 점수는 많은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 < .01$). 특히, 모든 영역에서의 불일치 점수는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타인의 승인 불일치 $r = -.46 \sim$ 가족의 지지 불일치 r

$= -.19$, all $ps < .01$) 불일치가 클수록 자존감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반성과 평가 사이의 불일치가 개인의 자존감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군집 분석

영역별 불일치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3개 혹은 6개 군집이 제안되었으나, 군집화 계수의 변화폭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3개 군집이 차별적 특성을 가진 의미 있는 분류인 것으로 나타나 3개 군집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군집변인들의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2단계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하였다. 최종 군집 분류 결과 군집 1은 107명(전체의 46.7%), 군집 2는 59명(전체의 25.8%) 군집 3은 63명(전체의 27.5%)으로 나타났다(그림 1). 카이제곱 검증결과, 각 군집 내의 분포는 성별 및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성별: $\chi^2(2, N = 229) = 5.68, p > .05$; 종교: $\chi^2(8, N = 229) = 13.82, p > .05$].

다변량 분석 및 사후검정

수반성과 평가점수의 차이점수에 따라 구성된 군집들 사이에 자존감 및 정신건강지표들의 평균점수 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 때, Box의 동일성 검정결과 집단의 동질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F(132, 91931.1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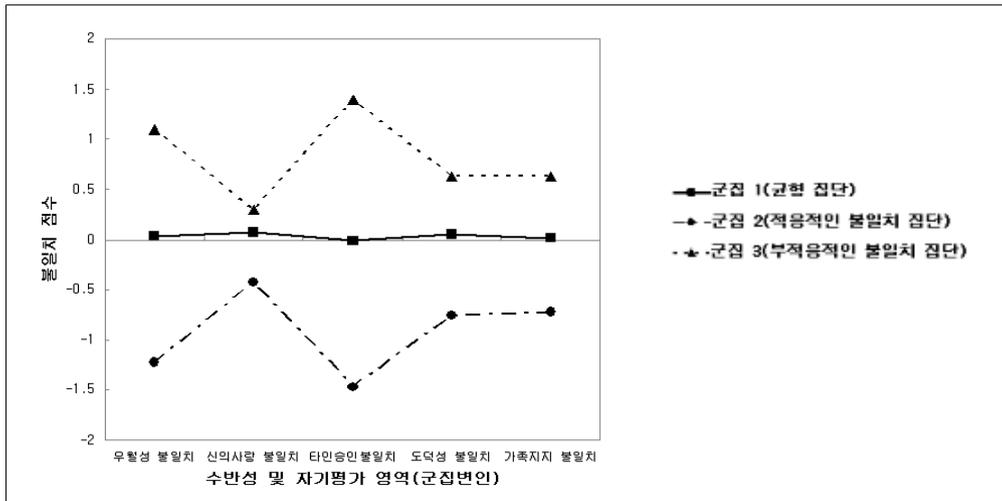


그림 1. 수반성 및 자기평가 사이의 불일치 점수에 따른 군집

표 3. 각 군집별 자존감, BSI 하위요인 점수 및 집단비교 결과

	군집 1 균형 집단 (n = 107)		군집 2 적응적인 불일치 집단 (n = 59)		군집 3 부적응적인 불일치 집단 (n = 63)		F(2,226)	사후검정
	M	SD	M	SD	M	SD		
자존감	30.94	4.42	33.71	3.76	28.06	4.57	26.12**	2 > 1, 3 1 > 3
신체화	.64	.66	.60	.76	.73	.81	.52	
강박증	1.25	.78	1.30	.73	1.71	.92	6.67**	3 > 1, 2
대인민감성	1.08	.88	.77	.82	1.70	.93	18.07**	3 > 1, 2
우울	1.05	.85	.83	.88	1.41	.97	6.63**	3 > 1, 2
불안	.85	.78	.86	.82	1.11	.85	2.33	
적대감	.74	.80	.56	.61	.87	.89	2.44	
공포	.55	.60	.41	.51	.74	.77	4.25*	3 > 2
편집증	.66	.69	.58	.68	1.05	.83	7.59**	3 > 1, 2
정신증	.82	.77	.75	.67	1.00	.79	1.85	
GSI	.83	.63	.74	.62	1.11	.71	5.45**	3 > 1, 2

주. *p < .05, **p < .01. N = 229. GSI = Global Severity Index(전반적 심리문제의 심각도), 사후검정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제시하였다(p < .05).

1.512, $p < .05$], Pillai의 Trace 값을 살펴보았다 (Mertler & Vannatta, 2005). 다변량 분산분석의 전체에 대한 유의성은 .01수준에서 유의미하여 [Pillai's Trace = .36, $F(22, 434) = 4.35, p < .05$, 부분 $\eta^2 = .18$] 각 군집들이 자존감 및 정신건강 지표들의 전반적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각각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에 의하면, 군집은 6개의 종속변인에서 .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떤 특정 군집들 사이에 종속변인의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부등호로 표시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군집 3은 다른 두 군집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BSI의 하위요인들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전반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집 1은 모든 영역에서 불일치 점수가 0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 수반성과 자기 평가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균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수반성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는 집단으로 불일치는 있으나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내어 '적응적인 불일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군집 2와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불일치 점수가 높고 부적응적인 특성을 나타내어 '부적응적인 불일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종합논의

연구 1에서 K-CSWS의 요인 구조를 탐색한 결과 미국에서 경쟁과 학업적 자신감, 외모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Crocker et al., 2003), 이 세 요인이 합쳐져 하나의 요인(우월성)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쟁과 성공에 큰 의미를 두는 한국의 현실에서 성적과 외모가 경쟁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우월성 요인에 포함된 문항 중 기존의 학업적 자신감 요인에 속했던 문항들은 '성적', '학교에서 잘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는 경쟁의 결과인 점수 혹은 순위 등으로 비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의 일부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6). 외모 역시 사회의 미적 기준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외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조기여, 황윤정, 2007).

특히, 우월성 요인에 대한 수반성은 학업, 진로, 취업이라는 현실적 고민을 가진 대학생들의 자존감 및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업, 진로, 취업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임과 동시에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다(김완일, 류진혜, 정미영, 김재환, 1994). Crocker와 Wolfe(2001)가 제안한 것처럼 특정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 영역에서의 성공여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고, 그 영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쉽게 변하여 부적응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심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의 경우, 우월성 영역에 대한 높은 수반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월성이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 영역의 수반성에 보다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월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미국에서의 요인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각 요인이 가지는 의미와 특성은 미국의 요인 들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Crocker와 그의 동료들(2003)은 수반성의 영역을 외적인 것과 내 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외적 영역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인 반면 내적 영역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의견과 관계 없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가족의 지지와 미덕 (도덕성), 신의 사랑을 내적인 것으로 간주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와 도 덕성은 자기 평가 소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보였는데, 이는 이 영역들에 수반된 자 존감을 가질수록 타인의 의견 및 평가에 민감한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 영역이 내 적이기 보다는 외적 영역일 가능성을 시사하 는 것으로, 이는 서구와 동양의 가족관과 도 덕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조공호, 2006)가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동일한 문항 으로 구성된 요인일지라도 K-CSWS의 각 요인 들은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에 추후 연구를 통하여 요인 각각의 의미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연구 2에서 영역별 불일치 점수에 따라 3개 의 군집(균형 집단, 적응적인 불일치 집단, 부 적응적인 불일치 집단)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 국 대학생들이 자존감의 수반성과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 다양한 개인차를 보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개의 군집 중에서 연구자 및 상담 실무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

져야 하는 집단은 군집 3(부적응적인 불일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영역에 걸쳐 높 은 수반성을 보인 이 집단의 자존감이 가장 낮고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편집증 및 전 반적인 심리문제의 심각도(GSI)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수반성이 높은 군집 3의 경우 수반성 영 역에 대한 개인의 기준은 높은 것에 비해 실 제 경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가 낮은 자존감, 우울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불일치가 클수록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낀 다는 Higgins(1987)의 자기 불일치 이론과 일관 적이며, 수반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부 적응적인 경향이 있다는 자기 가치감의 수반 성 이론(Crocker & Wolfe, 2001)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기 불일치와 관련된 국내 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군집 3(부적응적인 불일치 집단) 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특성 외의 부적응 문 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임일모, 조 용래와 김학렬(1995)은 전반적인 자기 불일치 가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병리 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군집 3과 같이 전반적으로 높은 자기 불일치를 보이는 집단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 해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군집 1(균형 집단)은 수반성 정도와 개인의 평가 사이의 차이가 0에 가까워 자기 불일치가 거의 없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군집 3(부적응적인 불일치 집단)보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 존감을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군집 2(적응 적인 불일치 집단)와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기 불일치가 거의 없이 균형을 이룬 개인은 비교적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군집 2는 모든 영역에서 수반성 점수보다 평가 점수가 높은 특성을 보였는데, 다른 두 군집에 비해 자존감 및 정신건강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적응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일치를 최소화 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각 영역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성취가 없는 높은 자존감은 오히려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취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umeister, 1998, 1999; Dawes, 1994). 특히, Baumeister(1999)는 실질적인 성취가 없이 칭찬이나 긍정적 사고를 유도해 자존감만 높일 경우 고양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들에게 자기 통제력 및 학습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상담분야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상담의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상담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Rogers, 1951, 1959).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순히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시각은 개인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서구문화에서 연구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서구에서 건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방향으로 개인의 변화를 돕는다면

(예: 자율성의 신장), 한국 내담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자존감의 수반성과 자기 불일치, 정신건강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잠재적인 한국 대학생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각 영역에 대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자존감이 높고 적응적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구직에 필요한 실질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춘 노동부의 '성취 프로그램'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긍정적 개선효과가 있었다(김명언, 장재윤, 조성호, 노연희, 2003). 아울러 개인의 평가가 실제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일치가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경험 및 지각을 탐색하여, 내담자가 비합리적인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응 편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연구 변인에 대해 참가자들의 실제 수준이 아닌 개인의 지각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군집분석이 표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 국내의 다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CSWS를 사용

하여 한국 대학생의 수반성 영역을 알아보았으나,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영역 외에 한국 대학생들의 자존감이 수반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Crocker와 그의 동료들(2003)이 이미 언급하였듯이, CSWS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자존감이 수반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판 CSWS에는 일본 문화를 반영한 요인인 '관계의 조화(relationship harmony)'가 추가되었다(Uchida, 미발표). 한국인의 가치와 관련된 연구(차경호 외, 2006; 김명소 외, 2003)에서 경제력과 관련된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음을 고려할 때, 경제력 요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K-CSWS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불일치 점수는 자존감의 수반성과 자기 평가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반성과 자기 평가가 모두 높으면서 차이가 거의 없는 개인과 두 점수가 모두 낮은 수준이면서 차이가 거의 없는 개인이 동일한 집단으로 구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불일치 점수의 절대적 크기는 같으나 그 특성이 다른 개인들이 한 집단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일치 점수를 통해 불일치 정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밝힐 수 있었으나, 수반성과 자기평가 사이의 차이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상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3개의 군집은 불일치 정도가 모든 영역에서 높거나 낮

은 특성을 보여, 특정 영역의 수반성과 불일치가 개인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존감의 수반성 이론에 근거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수반성 정도보다 각 영역별 수반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Crocker & Knight, 2005)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각 영역에 대한 수반성이 갖는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험연구를 통해 각 영역별로 성공, 실패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자존감 변화 및 수행의 결과를 비교한다면 수반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415-442.
- 김명언, 장재윤, 조성호, 노연희 (2003). 성취프로그램의 효과: 구직 효능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 181-204.
- 김완일, 류진혜, 정미영, 김재환 (1994).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학생활연구, 12, 125-199.
- 안신능 (2006). 자기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 109-140.
- 이영호, 최정원 (1998). 실제자기 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69-87.
- 이용승 (2000). 강박사고 역제의 역설적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자기 불일치와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자기 불일치 이론의 경험적 검증. *신경정신의학*, 34, 1416-1431.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887-901.
- 조궁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 비교. 서울: 지식산업사.
- 조기여, 황윤정 (2007).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 105-139.
- 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궁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6). 대학생의 학업 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이동교육*, 16, 143-154.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680-740). New York: McGraw-Hill.
- Baumeister, R. F. (1999). Low self-esteem does not cause aggression. *APA Monitor*, 30, 4.
- Brandstadter, J., & Greve, W. (1994). The aging self: Stabilizing and protective processes. *Developmental Review*, 14, 52-80.
- Brockner, J. (1984). Low self-esteem and behavioral plasticity: Some implication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 pp. 237-271). Beverly Hills, CA: Sage.
- Brown, J. D. (1994, October). *Self-esteem: It's not what you think*.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Lake Tahoe, NV.
- Bucur, D. R., & Lee, D.-G. (2006, August). *Locus of evaluation measureme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Poster present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 Burns,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1.
- Cooley, C. H. (1956). *Two major works: Social organization.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Glencoe, IL: Free Pres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cker, J., & Lawrence, J. (199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role of contingencies of self-esteem. In D. Prentice & D. Miller (Eds.), *The cultural divide* (pp. 364-392). New York: Russell Sage.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 - 623.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S.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 Crocker, J., & Knight, K. M. (2005). Contingencies of self-wor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200-203.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 - 354.
- Crowne, D. P., & Marlowe, D. (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Wiley.
- Dawes, R. M. (1994). *House of card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built on myth*. New York: Free Press.
- Derogatis, L. R. (1977). *SCL-90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I*. Baltimore: Johns Hopkins.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3), 595-60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leming, J. S., & Courtney, B. E. (1984). The dimensiona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04-421.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llowell, A. I. (1955). *Culture and experie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ewitt, P. L., & Dyck, D.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o, D. Y. F. (1995). Selfhood and identity in Confucianism, Taoism, Buddhism, and Hinduism: Contrasts with the West.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25, 115-139.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141-151.
- Leary, M. R., & Downs, D. L. (1995). Interpersonal functions of the self-esteem

- motive: The self-esteem system as sociometer. In M.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123-140). New York: Plenum.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D.-G., Lee, S. R & Park, H. J. (2008).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 65-82
- Lee, S. R., Lee, D.-G., Kim, M. J., & Choi, H. Y. (2007). *Locus of Evaluation in Cultural Perspectives*. Poster present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Mertler, C. A., & Vannatta, R. A. (2005).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3rd ed.). Glendale, CA: Pyrczak Publishing.
- O'Conno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ation, and Computers*, 32, 396-402.
- Park, L. E., & Crocker, J. (2005).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seeking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1, 1587-1598.
- Pelham, B. W., & Swann, W. B. Jr.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Pett, M. A., Lackey, N. R., & Sullivan, J.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Piers, G., & Singer, M. B. (1971). *Shame and guilt*. New York: Norton.
- Raskin, N. J., & Rogers, C. R. (2000). Person-centered 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6thed., pp.133-167). Belmont, CA: Wadsworth.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MA: Houghton-Mifflin Co.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pp.184-256). New York: McGraw-Hill Co., Inc.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fer, R. (1967). Ideals, the ego ideal, and the ideal self. In R. R. Holt (Ed.), *Motives and thought: Psychoanalytic essays in honor of David Rapaport* [Special issue]. *Psychological Issues*, 5(2-3), 131-174.
- Scheff, T. J., Retzinger, S. M., & Ryan, M. T.

- (1989). Crime, violence, and self-esteem: Review and proposals. In A. M. Mecca, N. J. Smelser & J. Vasoconcellos (Eds.),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pp.165-199).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lber, E., & Tippett, J. S. (1965). Self-esteem: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6, 1017-1071.
- Tenn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 Tu, W. (1994). Embodying the universe: A note on Confucian self-realization. In R. T. Ames, W. Dissanayake & T. P. Kasulis (Eds.), *Self as person in Asian theory and practice* (pp. 177-186).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Uchida, Y. (미발표) Self and social motivation laboratory. <http://www.rcgd.isr.umich.edu/crockerlab/measures.htm> (Japanese Version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참조). 검색일자: 2월 24일
- Velicer, W. F., Eaton, C. A., & Fava, J. L. (2000). Construct explication through factor or component analysis: A review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or components. In R. D. Goffin & E. Helmes (Eds.), *Problems and solutions in human assessment*. Norwell, MA: Kluwer Academic.
- Vignoles, V. L., Regalia, C., Manzi, C., Gollidge, J., & Scabini, E. (2007). Beyond Self-Esteem: Influence of Multiple Motives on Identity Constr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308-333.
- Zwick, W. R., & Velicer, W. F. (1982). Factors influencing four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7, 253-269.
- Zwick, W. R., &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3, 432-442.
- 원고접수일 : 2008. 2.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5
게재결정일 : 2008. 5. 9

The Effect of Discrepancies Between a Given Domain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Its Self-Evalua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Su-ran Lee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domains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Crocker & Wolfe, 2001) in Korea and examined the effect of discrepancies between a given domain of contingencies and its self-evalua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n study 1, 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 was validated in a Korean cultural context. The EFA results yielded a 27-item Korean CSWS with five distinctive factors. Four factors (God's love, Virtue, Others' Approval, and Family Support) were almost identical to the original CSWS; however, a new factor (Superiority) emerged in Korea. In study 2, based on the self-discrepancy theory (Higgins, 1987), a two-step cluster analysis and MANOVA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ree clusters (Adjusted Discrepancy Group, Maladjusted Discrepancy Group, and Balanced Group) emerged and the Maladjusted Discrepancy Group indicated a greater level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an the other two groups.

Key words : *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discrepancy, self-esteem,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n culture*